

최근 면세유 가격이 전정부 지로 치솟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시설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당분간 시름을 놓고 있으나, 올겨울 난방비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 '高유가 환율 하락' 시설농업도 큰 타격

농가경영비 15%↑ 소득 13%↓

농산물 수입량 10% ↑ 수출 5% ↓ ...무역수지 악화 '영농비 절반이상이 난방비' ...농사 포기해야 할 판

면세유류 가운데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경유는 지난 1일 기준 평균가격이 1.0단 708원에 달해 2004년 475원, 2005년 570원보다 크게 올랐다.

문제는 면세유 가격급등이 고스란히 영농비 증가로 이어져 농가 소득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6일 '유가 상승과 환율하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유가 연평균

배럴당 60달러를 기록할 경우 시설작물 농가경영비는 유가가 33.8달러였던 2004년보다 15.0% 증가, 소득을 12.7%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비료, 광열비 등 비용상승에 따른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 노지재배소나 축산 등 다른 부

문도 경영비가 0.6~1.8% 늘면서 농가 소득을 1% 가량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성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김모(45)씨는 "현재 면세 경유값이 700원을 넘어 전체 영농비의 절반이상이 난방비로 나간다"면서 "난방비 외에 물류에 소요되는 기름값 등을 합

치면 부담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에서 시설채소를 경작하는 조모(56)씨는 "올 초까지만 해도 하우스를 600여평 더 늘리려고 했지만, 유가가 연말까지 떨어지지 않을 경우 아예 농사를 포기할 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올 초 주요기관들의 전망치였던 990원에 비해 40원가량 떨어진 950원을 기록할 경우 늘어나는 농산물

수입량은 10%에 달하는 반면 수출은 4~5% 가량 감소, 농산물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김병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 시설농업농가의 경영비가 20% 오른 반면 소득은 10% 줄었다"며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하락으로 농민들이 생산과 수출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농업용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산상 악화를 겪고 있는 농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1,600cc 승용차 보험료 20%안팎 인하

내달 1일부터...중고자동차도 조정

다음달부터 1천600cc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고 중고자동차의 보험료도 조정된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6월1일부터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천600cc 승용차를 소형B(1천cc 초과~1천500cc 이하)로 변경해 보험료를 산정, 신규 가입 운전자와 계약 갱신 운전자에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천600cc 승용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최고 20%안팎 내려간다.

삼성화재의 예를 들면 35세 기준 남성(2005년식 차량, 보험 가입 경력 3년 이상, 보험료 할인율 30%, 에어백 등 장착, 35세 이상 운전 특약 및 부부합정 특약 가입)의 연간 보험료는 55만2천390원에서 44만7천740원으로 18.9% 싸진다.

이 보험료는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보상, 자기신체 피해 보상, 무보험차 피해 보상,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료를 모두 합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1천600cc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구입 시기를 6월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 또 출고한 지 4년 이상된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도 낮아진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한-아세안 FTA 중 상품무역협정 타결

2010년까지 자동차 등 관세 철폐 개성공단 생산품 한국산으로 인정

무역흑자 60억달러 늘 듯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9개 회원국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양자간 자유 무역협정(FTA) 중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ASEAN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수입액과 품목수 기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한 관세를 0~5% 수준으로 내리게 된다.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해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 물량(TRQ) 설정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에 양해제외, 장기간 소폭 관세인하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초민감품목' 3%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가 양해제외 품목으로 인정받은 것은 쌀, 닭고기, 활어 및

냉동 어류, 마늘, 양파, 고추, 대부분의 과일 등 45개 품목이다.

민감경도가 높은 다른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현행 관세의 20% 수준만 감축키로 합의, 국내 농수축산 분야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중 100개 품목에 대해 '한국산'을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되 FTA 발효 5년 뒤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통상교섭본부는 "ASEAN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시장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라며 "중장기적으로 대(對) ASEAN 수출이 약 100억달러 늘어나고 무역흑자도 약 60억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는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에 대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2010년까지 관세가 철폐되며, 완성차도 종류와 국가별로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거나 2016년까지 0~5% 수준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연합뉴스



1,000만원짜리 원피스

16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이색 원피스 패션쇼'에서 스와로브스키의 수정으로 장식된 1천만원짜리 원피스를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주택시장 침체원인은?

공급과잉·높은 분양가·과잉규제 탓

한국건설산업연구 진단

최근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는 공급과잉, 높은 분양가, 과잉 규제 복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긴급진단, 지방 주택건설 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방 주택시장은 2004년부터 공급과잉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 주택건설실적(사업계획승인 기준)은 외환위기가 이후 2003년까지 전체 주택건설 물량의 40%대를 유지했으나 2004년 들어 64.2%, 2005년 57.3%로 수도권 물량을 추월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정부 개발 계획에 편승해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벌여온 때문이며 지방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주택비율 등을 고려할 때 공급과잉 상태에 진입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높은 분양가도 지방 주택시장의 버블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2002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아파트 분양가는 광역시의 경우 연평균 10.3%, 도 지역은 14.2% 올랐다. 이중 울산은 27.7%, 대전 18.7%, 충남 17.9%가 각각 올라 같은 기간 서울(11.6%), 경기(16.7%), 인천(11.8%) 지역 분양가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반면 지방 대도시의 대부분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주택정책의 초점이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 주택경기의 정착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LG카드 '볼륨 업' 운동효과 특출

LG카드사가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3천억원의 흑자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업계 최초로 천만고객을 돌파하는 등 '볼륨업'(Volume Up) 운동의 효과를 보고 있다.

LG카드사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3천억원의 흑자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업계 최초로 천만고객을 돌파하는 등 '볼륨업'(Volume Up) 운동의 효과를 보고 있다.

주요 금융공사 보급자리본은 원리금 균등상환금리 6.6%~6.85%로 주택구입자금의 8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다. 문의는 062-222-3784. /장필수기자 bungy@

학력별 월평균 소득격차 갈수록 '극과 극'

대졸 319만원 > 초졸 10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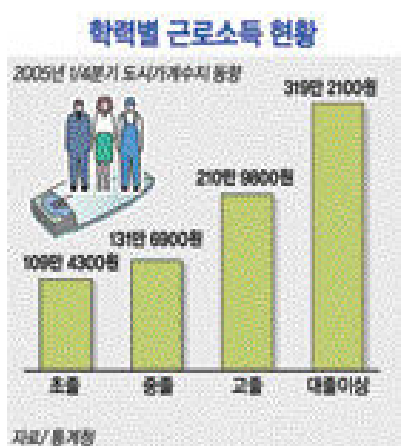
대학교와 초등학교 졸업자간의 근로 소득격차가 3배로 벌어졌다.

또 대졸자는 지난 5년간 42%의 임금 상승률을 보여 초·중·고 졸업자에 비해 임금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면서 이런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통계청의 1·4분기 도시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대졸 학력을 갖고 있는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319만2천1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304만5천400원보다 4.8%가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의 임금을 결합해 공표한다"면서 "시계열을 위해 대학졸업자의 임금을 별도로 구분해 내면 대학졸업자 임금은 전국가구에서 223만8천200원, 도시근로자가구에서 319만2천100원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도시근로자가구에서 초졸 학력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지난 1·4분기에 월평균 109만4천300원으로 1년전의 107만6천800원보다 1.6%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중졸자는 137만800원에서 131만6천900원으로 3.9% 줄었고 고졸자는 203만5천500원에서 210만9천800원으로 3.7%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졸자의 근로 소득은 초졸자의 2.9배로 전년 같은 분기의 2.8배보다 높아졌다.

대졸-초졸 임금격차는 지난 97년 2.2배, 98,99년 각각 2.3배에 머물렀으나 2000년에는 2.7배로 뛰어 올랐다. 이어 2001~2004년에 계속 2.6배를 유지하다가 올분에서는 3.0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Job Title, Department, Salary/Requirements, Start Date, End Date, Contact Info. Includes roles like IT, HR, and various administrative positions.

정세영 前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현대家 경영권 다름... 쓸쓸한 1주기

작년 타계한 '포니 정' 정세영 전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이 '쓸쓸한' 1주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고인의 아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사법처리에 이어 현대그룹 회장은 회장과 정몽준 의원의 경영권 분쟁으로 현대가로서는 어느 때보다 혹독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현대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고인의 1주기를 맞아 19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주시 고인의 선영에서 현대가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 조촐히 추모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고인의 1주기 추모 행사를 최소한 간소하게 한다는 상부의 방침에 따라 별도의 흥보를 하지 않았으며, 행사는 현대가 구성원들이 모인 가운데 조용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에는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고인의 1주기를 맞이해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공식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행사 방향이 가족 행사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또 19일 오후에는 삼성동 현대산업개발 사옥 1층 로비에서 고인의 흉상 제막식이 개최되고 20일에는 성북동 고인의 자택에서 제사가 열린다.

한편 고인의 1주기 행사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현 회장과의 정 의원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 회장측에서는 "아차피 만나고 싶었던 참이니 못 만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4년연속 한국 최고 CEO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이 홍콩의 금융전문지 '파이낸스 아시아'로부터 4년 연속 국가별 '최우수 최고재무책임자(Best CFO)'에 선정됐다고 16일 삼성전자가 밝혔다.

삼성전자는 국가별 '최우수 경영기업(Best Managed Company)'과 '최우수 IR(Best Investor Relations)' 분야에서 6년 연속 선정됐고, 아시아지역내 산업별 최우수기업 투표에서도 '기술(Technology)'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국가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부문(Industrials including Automobiles)'에서 1위에 올랐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파이낸스 아시아는 아시아지역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아시아 금융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월간 전문지 2001년부터 매년 200여명의 아시아지역 펀드매니저와 투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해 국가·산업별 최고 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세븐마운틴그룹 부회장에 임성주씨

세븐마운틴그룹은 애경그룹 부회장 출신의 임성주씨를 제조·건설·레저부문 총괄부회장으로 영입하는 등 일부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성주 신임 부회장은 애경화학 대표이사 사장, 애경그룹 부회장을 역임한 전문경영인으로, 세븐마운틴그룹은 그룹 규모의 확대에 따라 내실 다지기 및 마케팅강화 차원에서 임 부회장을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회장은 세븐마운틴그룹의 건설회사 우방과 컨테이너 및 철강 제조회사 진도, 패션유통회사인 진도에프앤, 레저부문의 한강유람선 운영회사인 한버랜드, 대구의 우방타워랜드 등 제조·건설·레저부문을 총괄하게 된다.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 ▲제조·건설·레저부문 총괄 임성주 <부사장> ▲동남아해안 사업총괄 김성기 <이사> ▲그룹 IR본부장 양덕근 <그룹 인사담당임원 조영민, 그룹재정(회계)담당 임원 문준환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